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이 희 연*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 결과적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단순한 '비행소강상태나 비행중단기간'이 아니라 '비행에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으로, 비행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로서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비행의 개입방향은 현재의 비행 억제나 제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전략은 조급한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수용적 태도를 갖고 청소년이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비행, 탈비행, 청소년, 근거이론, 질적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I. 서론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탈비행화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탈비행 현상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행과정에서 탈비행으로의 성공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는가? 변화를 일으킨 중요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과 탈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 범죄이론을 적용하여 비행원인을 찾는데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비행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실제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을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서는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어떻게 비행에서 빠져나오는가에 대한 경험과정이나 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행을 벗어나도록 돕는 효과적인 개입지점이나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범죄경력 중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의 탈범죄(desistance from crime)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Laub & Sampson, 2001), 청소년기의 탈비행(desistance from delinquency)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 동안의 탈비행은 분명 성인기의 탈범죄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데(Weitekamp & Kerner, 1994), 그에 대해 명백히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탈비행을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비행예측요인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탈비행 예측요인을 단순히 비행예측요인의 역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LeBlanc & Loeber 1993). 그러나 실제 탈비

행의 예측요인이 단지 비행예측요인의 반대인지, 또는 독특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Rutter,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의미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청소년이 탈비행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향과 개입전략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과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제이론의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II. 청소년기 탈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탈비행은 기본적으로 비행경력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데(Laub & Sampson, 2001), 이러한 비행경력을 다룬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은 비행원인론에 초점을 두고 어떤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는지,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무엇인지 등 비행의 원인과 비행 및 재비행 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행경력문제를 다루어왔으며, 탈비행에 관해서는 간과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생애과정론에서 ‘탈(벗어남; desistance)’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어 탈비행에 관한 의미있는 요인들을 밝힌 중요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Wright & Cullen, 2004; Bushway et al., 2003; Farrington, 2003; Hughes, 1998).

최근의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 ‘탈비행’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빈번하고 심각한 비행이 줄어드는 과정(Fagan, 1989)’ 또는 ‘중단의 임시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Laub & Sampson, 2001),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나

타나는 범죄경력의 영구적인 종말을 ‘진정한 벗어남’ 또는 ‘종결(termination)’로 본다(Bushway et al., 2001). 그런데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중단인 ‘행위의 종결’은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종결’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범행없음(nonoffending)의 최종상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과정(desistance process)’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임시적 중단과정이나 감소과정’을 포함한 인간발달의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Bottoms et al., 2004; Laub & Sampson, 2001; Maruna, 2001; Loeber & Leblanc, 1990). 그리고 또한 ‘벗어남’은 범행횟수감소나 중단기간과 같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자 자신의 의미있는 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Bottoms et al., 2004; Bushway et al., 2001), 이와 관련하여 Farrall과 Maruna(2004)은 Lemert(1951)의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에서 용어를 차용하여 1차적 ‘벗어남’과 2차적 ‘벗어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즉, 1차적 ‘벗어남’은 범행없는 기간 또는 소강상태를 의미하며, 2차적 ‘벗어남’은 비범죄자로서의 정체감 또는 변화된 사람으로 보았으며, 일정기간 동안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진정한 벗어남’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벗어남’은 단순한 비행사건이 없는 비행중단상태나 또는 범행없음의 최종단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시간에 거쳐 변하는 발달적 과정이며, 의미있게 개인의 범죄성이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ushway et al.,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탈비행’을 ‘비행중단시점이나 비행횟수의 감소 또는 비행중단기간’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으로 개념화 하고자 한다.

이러한 ‘탈(벗어남)’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기의 탈범죄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청소년기 탈비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긴 하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청소년 탈비행의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부

모, 또래, 지역사회, 제도 등과의 사회적 연대가 있으며, 또한 비행경력에서의 누적적인 불이익의 감소와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option) 및 전환점(turning point), 유능감 그리고 적응유연성 등이 있는데, 연구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arrington과 Hawkins(1991)은 아버지와 함께 여가활동하기, 학교에 전념하기 등을 탈비행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Loeber 등(1991)은 학교에서 철수되지 않음, 분열적 행동이 적음, 긍정적 동기와 태도 등이 탈비행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Akers(1998)는 비행또래와의 접촉 차이를 가장 중요한 탈비행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Thornberry와 Krohn(2001)은 가족유대 강화 등 사회적 영향요소의 변화, 학업성취와 같은 보호요인, 개입프로그램 등에 의해 탈비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 탈비행의 중요 요인으로 가족 및 학교와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Donenberg et al. 2002; Eddy & Chamberlain, 2000; Paternoster & Brame, 1997).

이러한 논의와 함께 Moffitt(1993)은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option)을 탈비행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녀는 인생의 궤도(trajecory)는 ‘변화(transition)’와 ‘선택(choice)’의 계속되는 과정인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궤도에서 누적된 불이익이 적을수록, 변화를 위한 선택기회가 많을수록, 보다 성공적 방향으로 ‘변화’와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Elder(1998)는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인생과정의 성공적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으로 보았는데, 전환점의 주요한 특징으로 새로운 시작, 타임아웃이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유예기간, 자기 미래의 재생, 상호적인 접촉, 새로운 문화적 경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전환점은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큰 기회와 잠재적인 전환을 제공해준다고 보았다(Elder, 1998). Sampson과 Laub(1993, 2003)도 사회적 유대와 더불어 전환점을 탈범죄의 대표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이 인생의 전

환점(turning point)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전환점으로 결혼, 부모되기, 직업, 군대 등과 같은 예가 있다고 보았다. Hughes(1998)는 질적 연구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탈비행의 전환점으로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¹⁾’, ‘약물남용 및 거리생활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 ‘숙고의 기간²⁾’, ‘지지³⁾’ 및 긍정적인 역할모델’ 등 4가지로 밝혔다. 이러한 전환점과 관련해서 Benson(2001)은 학교제도 등 청소년기 동안의 독특한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Farrington, 2003에서 재인용).

이외, 강점관점인 적응유연성(resiliency)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비행을 촉진하는 중요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Kirby와 Fraser(1997)는 청소년의 적응능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보호요인이 재비행을 예방하고 탈비행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Born 등(2002)은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력과 탈비행,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에서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탈비행 요인으로 보호적 거주환경, 다른 사람과의 애착, 긍정적 자기이미지 등을 제시하였다. Search Institute(1998)은 탈비행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을 환경적 보호요인과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보호요인을 지지, 힘북돋우기, 명확한 한계설정과 기대, 건설적인 시간활용으로 보았으며 개인적 보호요인을 학습에 대한 헌신도,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정체감으로 보았다.

지금까지는 해외 문헌에 나타난 탈비행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내 문헌에서 다른 청소년기 탈비행 연구를 보면, 우선 강점관점인 적응

-
- 1) 비이기적 동기(unselfish motive)로 자기자녀에 대한 양육경험, 범죄환경에서 위험 속에 방치된 어린이를 보고 느낀 연민 등
 - 2) contemplation time; 거주자 프로그램 등 비행환경에서 격리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와 시간.
 - 3) 무조건적 수용, 대화나 조언 및 상당을 필요로 할 때 확실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여가적이고 가족같은 느낌을 주는 활동에 참여, 교육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원조, 자기가치와 자존감 증진을 도와줌.

유연성을 적용하여 탈비행요인을 탐색한 연구(유성경, 2000), 도시와 격리된 대안학교에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탈비행화 과정에 관한 현장연구(박한샘·오익수,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일사례연구(이종수, 2002), 탈비행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재규, 2003) 등 질적연구 중심으로 소수 나와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탈비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족 및 또래, 학교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연대, 격리된 환경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turning point), 개인의 인지적 특성 변화, 발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탈비행의 요인들은 보편 사회적 연대의 강화,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 전환점, 적응유연성 및 보호요인, 유능감, 발달적 요인 등으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모두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비행경력에서 벗어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비행경력을 지속시키는 요인들과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역동적이고 집합적으로 탈비행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비행에서 벗어난 청소년 14명(A~N)으로,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청소년 팀,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등 총 5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전문가, 교사 등으로부터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탈비행 기준은 첫째, 청소년 본인이 비행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느낌, 둘

째, 객관적으로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청소년전문가 등 주변의 책임있는 성인 1인 이상에 의해 비행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됨, 셋째, 적어도 최근 6개월간 비행행동을 중단하였거나 현저히 감소함, 넷째, 청소년 본인이 가정, 학교 혹은 소속된 집단에 적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등으로,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사례는 녹음을 한 후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과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이론적 표본추출, 메모와 도표, 지속적 비교 등의 분석방법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분석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청소년팀,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전문가, 교사 등 여러 분야의 청소년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청소년 수기와 기사 등 다양한 보조적 자료를 활용하였고, 면접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비구조적 면담으로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우선 참여자들에게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성인 초기에 비행에서 벗어난 7명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비교분석작업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시기에 탈비행에 성공하여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고 적응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1인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외 자료분석과정에서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청소년 전문가 4명과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2명 그리고 국문학박사 1명과 함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만 16세-18세이며, 성비율은 남자청소년 7명과 여자 청소년 7명이다. 탈비행 이전의 비행경험은 사회복지개입을 필요로 하는 비행행동으로 가출, 등교거부, 무단결석, 무단수업이탈, 늦은 귀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의 출입, 조숙한 성관계, 임신 및 낙태, 흡연, 음주, 오토바이 훔치기, 빈집털이, 학교폭력, 원조교제 등 지위비행을 포함한 복합적인 비행이며, 비행경험은 연구참여자의 보고에 기초하였다.

2. 개방 코딩 :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물체, 작용/상호작용을 하위

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그 개념들을 무리지어 범주화시키고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21개의 개념과 50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한층 더 추상화시킨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근거자료의 범주화

범주	하위범주	개념
hit the bottom	노는 생활에 질림	노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음/노는 게 그게 그거고 뻘함/노는 생활이 짜증 남
	노는 게 고생스럽고 힘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고생스러움/돈도 없고 돈 없이 놀 것도 없고 노는 게 힘들
	노는 생활에 대한 회의감	무의미한 노는 생활이 허무하고 허탈함
	노는 생활에 대한 막연한 문제인식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변화에 대한 막연한 바램	그만해야겠다는 맘/그만할 때도 됐다는 느낌
사회적 소외감	서러움	자신의 모습이 서럽고 한심하다고 느낌/학교안가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낌
	심리적 우울감	평범한 또래를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자극받음/생활이 짜증나고 답답함
	평범한 생활로의 회귀선망	학교생활이 그리워짐/교복입은 모습이 부러움
반성의 계기	누진적 계기	교정기관에서 반성함/자기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가족에 대한 미안함/타산지석으로 자신을 반성함/잔소리가 서서히 마음에 새겨짐
	결정적 계기	비행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음/비행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낌
자각	자각과정	알 나이가 됨/갑자기 생각이 확 틀/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깨닫게 됨/결정적 계기와 주위의 일깨움으로 깨달음
	자각경험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됨/사회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됨/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할 건 해야 된다고 느낌/내가 열리고 세상을 받아들임/내 주위가 보임/귀가 열리고 들림/나를 돌아봄/생각이 점차 달라짐

범주	하위범주	개념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미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미래에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비전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함/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
	미래 내 모습에 대한 고찰	내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내 평생 배달만 하고 살수 없다는 생각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	사방에서 나를 일깨움	나를 일깨우는 힘이 사방에서 겹쳐옴/운이 좋게 적절한 시기에 관심이 몰려옴
	주위의 염려와 관심을 받아들임	주위의 염려가 마음에 와 닿음/주위의 관심을 받아들여 내안에 뿌리내림
자기의지	마음잡음	이제는 안한다고 마음먹음/확실히 마음잡음
	자신의 의지	자기하기에 달림/자신의 의지가 생김
	자기절제와 노력	스스로 자제함/끈기를 가짐
주위환경의 뒷받침	심리적 뒷받침	이해와 수용/관심/존중/비밀언덕/친밀감
	기능적 뒷받침	다양한 학습 선택 및 참여의 기회/인생의 스승/인생의 선배/안전한 돌봄 제공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일단 규칙적인 생활시도	시간과 요일개념이 생김/저녁에 일찍 들어가기
	일단 학업에 전념하기	우선 공부하기를 시도함
	우선 배움을 시도	우선 검정고시를 준비/배울꺼리를 시작하기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일단 지각결석하지 않기/학교에 소속되기/학교생활에 재미붙임
또래관계의 변화	비행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비행친구와 연락을 스스로 끊음/비행친구와 저절로 멀어짐/노는 친구와 거리감 유지하기
	적응적 친구 사귀기	적응적인 옛 친구와 우정회복하기/모범생 친구사귀기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비행행동 거절하기	친구들이 불러도 노는 곳에 안나가기/할 일있다고 확실히 거절하기/친구의 유혹을 거절하기
	비행행동 줄이기	비행행동의 감소/할일하면서 놀기/내 자신의 유혹을 이겨내기
	사회적 통제를 수용	기록에 남으면 사회생활에 지장받음/사회적 제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제하게 됨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칭찬받음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해줌/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음
	인정받음	선생님이 내게 관심을 보여주고 인정해줌
	기대에 부응함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책임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생김/선배로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함
	성취노력	성적이 올라감/자격증을 따/대외적인 상을 받음/성적을 조금씩 올리면서 대입까지 생각함/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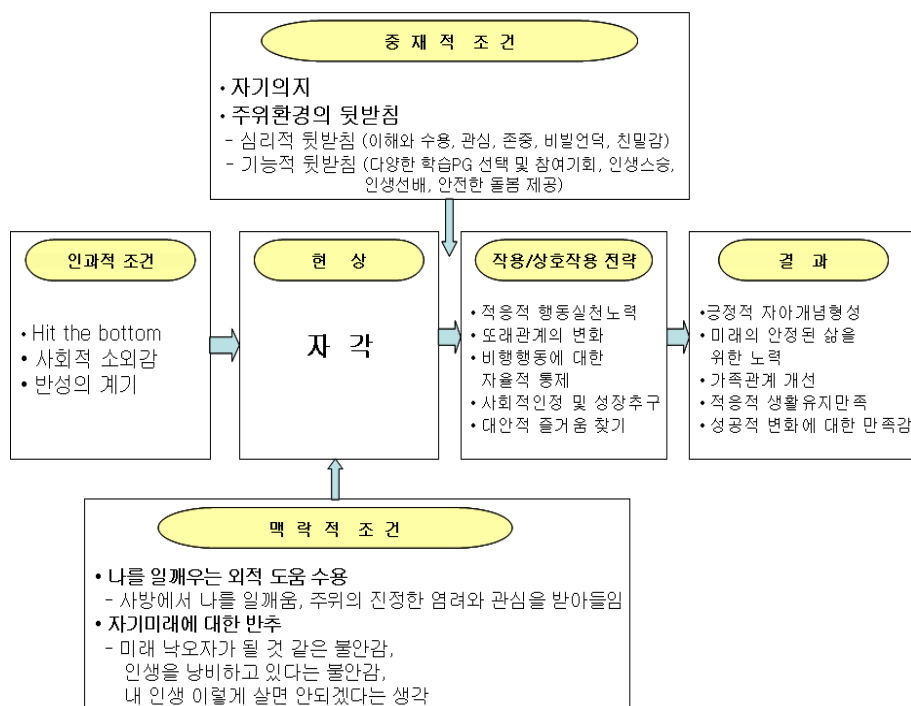
범주	하위범주	개념
대안적 즐거움 찾기	즐거는 방식이 바뀜	내게 유익한 방식으로 놀게 됨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함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함/흥미로운 유익한 활동에 빠짐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자신감이 생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신이 소중해짐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낌/나를 아낌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진로목표와 계획을 세움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정함/진로계획을 세움/구체적인 진로탐색
	자기개발노력	꿈을 향해 하루하루 노력함/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을 개발함
가족관계 개선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가	부모님 건강이 염려됨/부모님을 이해하게 됨/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함/가족과 대화 증가
	부모와 친밀해짐	엄마와 친구같이 지냄
적응생활 유지만족	적응적 생활유지	저절로 습관이 바뀜/적응적 생활습관이 몸에 뱌/시간 과 용돈 관리하기/규칙적인 생활유지/착실한 생활유지 열심히 생활하기
	적응적 생활유지다짐	놀아봤으니까 다신 안놀 것이라는 다짐/이전생활로 돌 아가지 않음
	적응적 생활에 만족함	놀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러움
성공적 적응에 대한 만족감	변화에 성공한 느낌	성공적인 자기변화/지금까지의 변화노력을 포기 못함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	자신에 대한 만족감/내 자신이 당당해졌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소중하고 만족스러움

3. 축 코딩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가 ‘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떤 결과’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음으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조건들,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 과정을 분석한다(Strauss & Corbin, 1998).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casu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우연적 또는 인과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의 계기’가 중심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의 계기’의 역동적 작용을 통해 ‘자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hit the bottom	강 도	강함 - 약함
사회적 소외감	정 도	심함 - 약함
반성의 계기	수 준	결정적 - 누진적

(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용어로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참여자가 탈비행화 과정에서 느끼는 중심현상은 ‘자각’으로 나타났다. 이 ‘자각’을 구성하는 하위범주에는 ‘자각과정’과 ‘자각경험’이 있으며, ‘자각’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각	수 준	강 함 - 약 함
	연 속 성	지속적 - 일시적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하는 어떤 현상 또는 현상의 속성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으로, 어떤 현상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

다. 이는 각 조건들에서 나오며 각 조건들이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 내도록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방식의 산물로서 현상의 이유⁴⁾를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 수용’과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가 중심현상인 ‘자각’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 수용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정 도	깊 음 - 얕 음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변화시키고,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며,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의지’와 ‘주위환경의 뒷받침’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탈비행을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자각’이라는 현상에 대처하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신의 의지	강 도	강 함 - 약 함
주위환경의 뒷받침	역 할	강 함 - 약 함

4) 맥락적 조건은 서로 결합되어 어떤 하나의 구체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단의 조건들로 어떤 현상에 대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서 현상을 '어떤 방식(how)'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다(Str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각'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또래관계의 변화',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사회적 인정과 성장추구', '대안적 즐거움 찾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태 도	적극적 - 점진적
또래관계의 변화	정 도	크 다 - 적 다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 도	강 함 - 약 함
사회적 인정 및 개인적 성장추구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대안적 즐거움 찾기	태 도	적극적 -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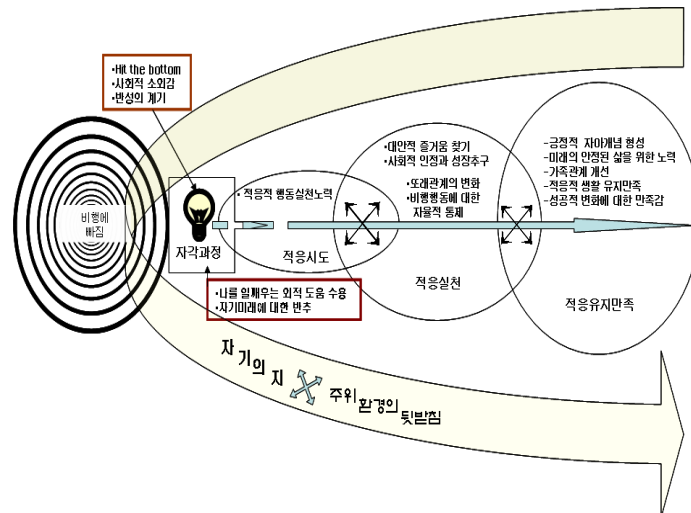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자각'이라는 중심현상을 갖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을 하며,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적응적 생활을 유지만족'하며, '성공적 적응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결과로 나타났다.

2)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한 가지 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구조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정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탈비행화 과정은 다음의 [그림 2]와 ‘자각과정, 적응시도, 적응실천, 적응유지만족’ 등 4단계의 하위과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⁵⁾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서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과정인 ‘자각과정’, ‘적응시도’, ‘적응실천’, ‘적응유지만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5) 그림설명: 탈비행화 과정은 각각의 하위과정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원의 중복) 각각의 조건들과 현상이 상호작용을 통해(교차되는 화살표들과 전진 방향의 회귀화살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운데 일직선 화살표)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 하위과정인 ‘자각과정’은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반성적 계기 등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과 더불어 각 조건들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각과정’은 탈비행으로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적응시도’과정은 ‘자각’을 통해 생긴 심리적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탈비행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전략을 모색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참여자에 따라 첫 번째 ‘자각과정’에서 두 번째 ‘적응시도’과정으로 이행되는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난다. 어떤 참여자들의 경우 첫 번째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빠르게 이행되며 어떤 참여자들의 경우 얼마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기도 하는데, 강한 자각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 빠르게 두 번째 과정으로 이행하고, 미약하고 점진적인 자각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는 ‘자각과정’이 길며 서서히 ‘적응시도’과정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이행기간의 차이는 두 번째 과정에서 세 번째 과정으로 이행될 때도 나타난다. 전자일 경우 ‘적응시도’과정에서 다음과정인 ‘적응실천’과정까지 빠르게 이어지는데, 후자일 경우 비행행동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거나 심한비행에서 경미한 일탈행동으로 완화되어가면서 소강 또는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감소하고 두 번째 과정인 ‘적응시도’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 머무른다.

세 번째 ‘적응실천’과정은 ‘적응시도’과정의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점차 생활이 규칙적이고 안정되어가며 여러 가지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사용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응유지만족’과정은 ‘적응실천’과정을 통해 일상생활방식이 적응적으로 바뀌면서 평범하고 적응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이에 만족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재적 조건인 ‘자기의지’와 ‘주위환경의 뒷받침’이 탈비행을 위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모색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

4. 선택 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1) 핵심범주 :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핵심범주(central category)는 연구의 중심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몇 단어 안에 응축하는 추상화 작업이다. 이러한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들을 끌어 모아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석적 힘을 가져야 하며, 또한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0).

범주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자각을 통해 비행에서 빠져나오면서 점차 사회로 회귀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비행에 빠져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는 게 재미없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만 둘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즉 심리적으로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잠재되어있던 사회적 소속에 대한 선망과 크고 작은 반성적 계기를 통해 내 안에서 나와 세상과 접촉하면서 비로소 비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탈비행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통해 그러한 폐쇄적 상태를 깨고 나와 다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각(自覺)’이란 국어사전(두산세계대국어사전, 2004)에 의하면 ‘ 1.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깨달음, 2. 스스로 느낌’을 의미하며, 철학적 의미로

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반성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의식에 떠올려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scal 세계대백과사전, 2002). 그리고 ‘회귀(回歸)’란 ‘다시 본디(본래)의 자리로 돌아옴’(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4)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비행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참여자들은 ‘자각’을 통해 비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점차 자신이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생각이 변하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 알게 되고...’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조금씩’ 또는 ‘갑자기’, ‘어느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자각하기까지’ 끊임없이 내적·외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심리적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인식하지 못하다가(무의식적 과정) 어느 순간 크고 작은 계기로 ‘자각’(의식적 과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은 무의식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심리사회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비행에서 벗어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와’ 적응적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실천노력을 통해 탈비행에 성공하게 된다.

2)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⁶⁾의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과정은 2가지 유형인 ‘개과천선형’과 ‘점진적회귀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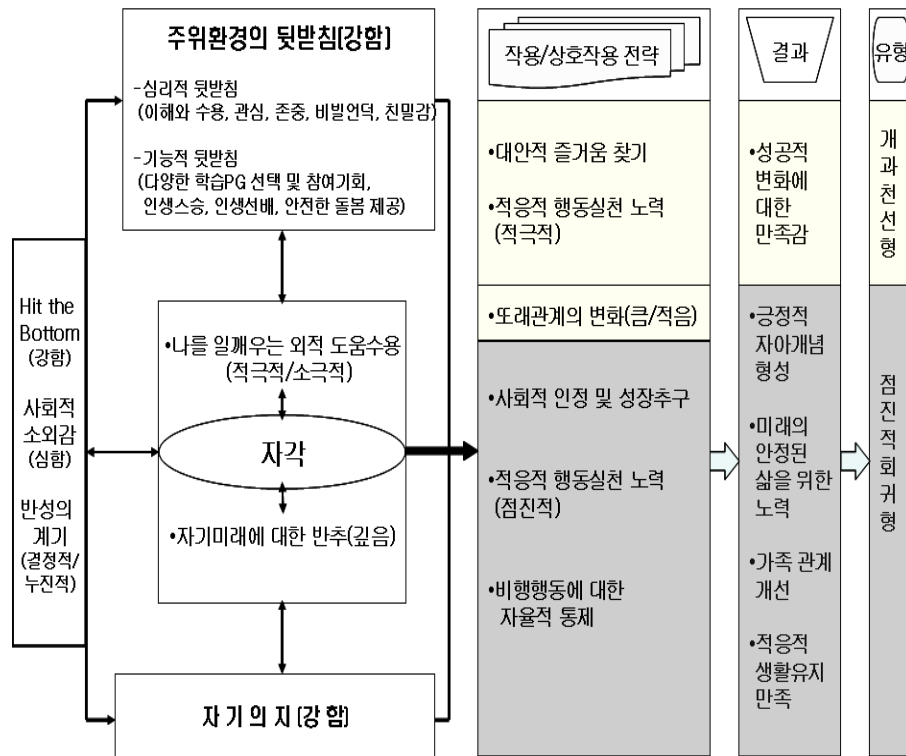
6) 가설적 정형화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과정으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그리고 가설적 관계진술이란 가설적 관계를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은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범주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통적인 범주와 개념들은 탈비행을 촉진시키거나 돕는 기본적 요인으로 파악된다.

<표 7>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유형

유형 패러다임	개과천선형	점진적회귀형
인과적 조건	· hit the bottom (강함) · 사회적 소외감 (심함) · 반성의 계기 (결정적)	· hit the bottom (강함) · 사회적 소외감 (심함) · 반성의 계기 (누진적)
현상	· 자각 (감함/지속적)	· 자각 (약함/지속적)
맥락적 조건	·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적극적) ·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깊음)	·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소극적) ·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깊음)
중재적 조건	· 자의의지 (강함) · 주위환경의 뒷받침 (강함)	· 자의의지 (강함) · 주위환경의 뒷받침 (강함)
작용 / 상호작용	· 적응적 행동실천노력 (적극적) · 또래관계의 변화 (큼) ·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함) ·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적극적) · 대안적 즐거움 찾기 (적극적)	· 적응적 행동실천노력(점진적) · 또래관계의 변화 (적음) ·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강함) · 사회적 인정 및 성장 추구 (적극적) · 대안적 즐거움 찾기 (소극적)
결과	·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 가족관계 개선 ·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	·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 가족관계 개선 ·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위의 <표7>는 각 유형을 범주의 속성과 차원으로 기술한 것이며, 다음 [그림 3]은 현상, 각 범주들,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 그리고 유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자각’이 각 조건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의 ‘자각과정’이 인과적 또는 우연적 조건 뿐 아니라 맥락적 및 중재적 조건과의 역동적 상호작용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유형화 도식

(1) 개과천선형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지난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의 뜻을 가지는데,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비행문제에 대한 강한 '자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적응적 일상으로 성공적인 회귀를 하였다. 그리고 예전에 놀던 때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변했다고 느끼며 자신의 성공적인 변화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즉, 성공적인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과정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확실하게 변하게 된 경우인데 이 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는 B, G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노는 생활에 대해 '지긋지긋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는 생각'과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닥을 강하게 친 느낌(hit the bottom)을 가졌으며, 또한 적응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사회적 소외감을 심하게 느꼈다. 그러면서 놀던 친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저지른 비행사건으로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이를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여 획기적으로 '자각'하게 된 경우이다. 이때 결정적 계기는 사건자체의 경중(輕重)때문이 아니라, 참여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졌는데, 점진적회귀형 중에 B와 동일한 사건인 '여자친구의 임신과 낙태문제'를 경험한 참여자도 있었지만 B와는 달리 이를 미약한 누진적 계기중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물론 결정적 계기가 '자각'에 단일조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각 조건들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같은 개인적 특성까지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누진적 계기보다는 결정적 계기가 심리적 자극이 강하므로 무의식적인 막연한 문제인식수준을 의식수준으로 '확'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맥락적 조건인 깊은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와 열린 마음으로 '나를 일깨우는 외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자각'을 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주위에서의 심리적·기능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작용/상호작용 전략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각 조건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탈비행을 위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또래관계의 변화'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강한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하게 되었고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응적인 대안적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몰입하게 되었다. 이때 '적응적인 대안적 즐거움'은 헬스나 영상제작 등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몰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개과천선유형에서만 나타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참여자의 성공적 변화를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었으며, '자신의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배려와 친밀감이 향상되었으며, 현재의 적응적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변했다고 느끼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꼈다.

(2) 점진적회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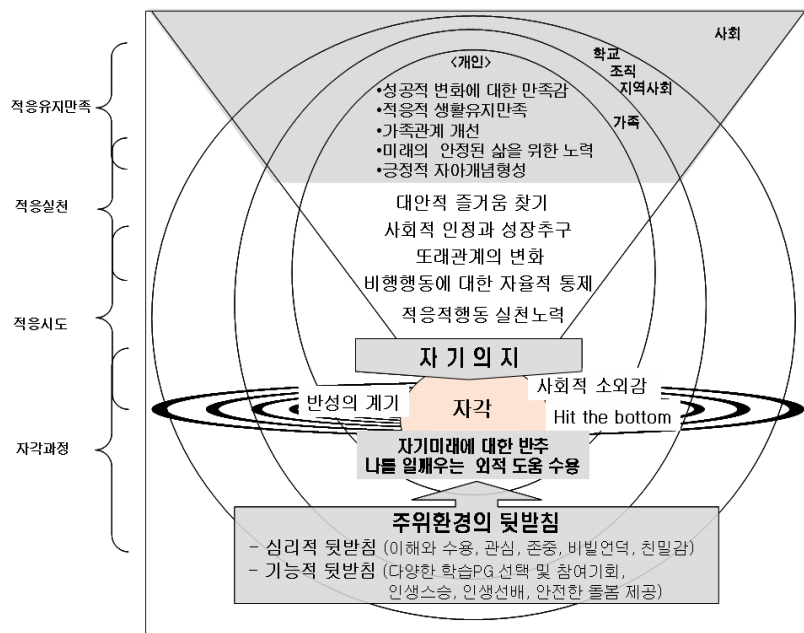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강한 hit the bottom과 심한 사회적 소외감 및 누진적인 반성의 계기를 통해 자각하면서 점진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 유형이다. 노는 생활에 바닥을 친 느낌 및 사회적 소외감과 누진적 반성의 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각이 일어나는데, 자신을 일깨우는 외부의 도움수용에는 소극적이지만 자기미래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반추를 통해 ‘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비행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 유형도 개과천선형과 마찬가지로 중재적 조건인 ‘주위의 뒷받침과 자기의 지’가 강한데 이를 기반으로 탈비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또래관계의 변화가 적고 대안적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지만,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 강하며 사회적 인정과 성장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점차 비행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커지게 되며 현재의 적응적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 유형의 참여자는 개과천선형인 B, G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인 A, C, D, E, F, H, I, J, K, L, M, N인데, 이러한 점진적회귀형이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일반적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유형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사회적 소외감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사회적 소속감 및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자신들의 심리적 욕구와 생애발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성숙이 맞물려, 사회적 기준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3)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상황모형 분석

상황모형(Matrix)은 다양한 상황적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얹혀서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분석도구로서 일련의 개념들을 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통합된 설명을 구축하고 각 조건들과 현상간의 관계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포함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상황모형 분석은 조건/결과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 속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시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작용/상호작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Strauss & Corbin, 1998). 즉, 직접적인 방식으로 A(조건)가 B(작용/상호작용)로 이끌어 C(결과)가 되는 단선적인 과정은 드물고, 조건/결과는 대래 무리지어 존재하며 역동적 방식으로 서로 간에 상호 연결되고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작용/상호작용은 복수의 조건에 반응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떤 것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고 어떤 것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며 어떤 것은 미래에 기대되는 것이다(Dewey, 1934).



[그림 4]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상황모형

본 연구에서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의 상황모형은 앞의 [그림 4]과 같다. [그림 4]에서 보면 ‘자각’을 둘러싸고 모든 조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자각’이 개인수준에서 일어나지만 개인 심리내면적 경험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각과정은 노는 생활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hit the bottom)과 심리적 소외감 등 심리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크고 작은 계기들 그리고 ‘주위환경의 뒷받침’과 자기개방을 통한 ‘나를 일깨우는 외적 도움수용’ 및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 등 거의 모든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인 심리사회적과정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자각과정을 통해 개인수준에서부터 사회수준까지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비행에서 빠져나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의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에서 빠져나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위환경의 뒷받침 및 자기의지’와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 및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는 자각을 지속하게 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력, 적응적 생활 유지만족, 가족관계 개선, 성공적 변화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

4)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과 과정의 통합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과 과정의 통합된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 유형과 과정의 통합

유형 과정	개과천전형	점진적회귀형
자각 과정	-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결정적 계기 -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미래에 대한 반추가 깊음	- 누진적 계기 -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가 깊음
	‘크게 힘들어하고 충격받아 왔으니, 인생 제대로 살자, 그리고 얼마 후 친척 형이 그 형 고3때까지 놀았어요 그 형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우는데, 진짜 그때 마음이 막... 그 형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랬다는 거 후회가 되니까,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변화가 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았죠. 정말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계속, 지금 자퇴를 했던가 그랬을 꺼예요.(참여자 B) ‘뭐 저만 게 다 있어, 그 이후로 개가 안보이고 개가 하는 말이 안 들리고...그게 정말 계기였죠.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엄마를 봐서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구, 막 겹쳐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선생님들도 나를 지켜보고 있고.. (참여자 G)	‘어느 순간부터가, 그냥 모르겠어요, 계기가 확실한건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깨닫는 것 같아요. 사람 안에 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요..’(참여자 D) ‘어느 순간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하고 그런 게 귀찮지만 자기가 못 느껴도,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A) ‘어느 순간 확 오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만 해야겠다... 우선 자기 생각이 변해야 되요.(참여자 C)
	→각 조건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강한 ‘자각’이 유지되면서 내적·외적인 변화와 자아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명백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드러나지 않는 ‘자각을 촉진하는 자극들(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 누진적 계기 등)’이 심리내면에 쌓여가는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한 점진적 과정으로, 이는 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적응 시도	- 내적·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스스로 뭉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죽어라, 코피날정도’로 노력하며, 또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함	- 내적·외적 자원을 점진적으로 활용함 - 자신이 우선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시작하며, 스스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함
	- 단기간에 적응시도를 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이행함 - 획기적인 적응시도를 하면서 비행문제를 거의 안보이고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	- 중·장기간을 거침 - 점진적으로 적응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비행행동이 줄어듦. 심한비행에서 경미

유형 과정	개과천선행	점진적회귀형
		한 일탈행동으로 완화되어가면서 비행소강기간과 비행행동기간이 순환되며 비행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점진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적응 실천	· 적응행동실천노력이 적극적이며 다양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자신의 내적·외적 성장욕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대안적 즐거움을 찾아 몰입하면서 더욱 급격히 변화함	· 적응행동실천 노력이 점진적, 비행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사회적 인정 및 성장추구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고 일상생활관리에 중점을 둠
적응 유지 만족	· 자신이 성공적 변화를 했다고 느끼며, 만족도가 높으며, 자아실현 욕구가 강함 ‘옛날엔 그렇게 놀았는데, 지금은 제가 나름대로 제 자신한테 성공한 게 많아요’(참여자 B)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설레이면서 주춤하지 않고..’(참여자 G)	· 자신이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느끼며, 사회적 기준에 자신이 부합되어 갈수록 만족함 ‘저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변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 많이 달라졌죠. 착실해 진거죠. 월급하고 버스비 막 이런 거도 생각하게 되고’(참여자D) ‘놀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만족스럽죠. 당연히.. 지금은 진로준비하고.. 내가 만족할 정도로 더 열심히 해야죠’(참여자 K)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에서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돌아오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으

며,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의 중심현상은 ‘자각’이며, 경험의 핵심범주는 ‘자각을 통한 적응적 일상으로의 회귀’로 파악되었다. 즉,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은 단순한 ‘비행소강상태나 비행중단기간’이 아니라 ‘비행에서 벗어나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외적으로 변화해가는 점진적인 발달적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탈비행화 과정 경험은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생태체계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hit the bottom, 사회적 소외감’과 함께 ‘자기 미래에 대한 반추’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존재로서, 기본적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소년기 탈비행을 위한 개입은 현재의 비행문제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개별적, 심리사회적 욕구와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장욕구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그 자신의 심리·사회적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기 탈비행의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중재적 조건은 청소년의 탈비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기능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선택 및 참여 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멘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등은 탈비행의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

히 개과천선형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안적 즐거움 찾기'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발견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이는 참여자들이 '학습프로그램 선택 및 참여기회', '인생의 본이 되는 인생스승', '나의 진로탐색과 기능습득이나 학습을 돕고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인생선배' 등 중재적 조건을 토대로 사용된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서 성공적 변화를 돕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따라서 탈비행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략은 단순히 비행억제나 제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는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청소년복지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 중 '심리적 뒷받침'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이해와 수용, 관심과 존중, 힘들 때 기댈만한 비빌언덕, 친밀감'등은 청소년들이 '자각'을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맥락적 조건인 '나를 일깨우는 외적도움수용'의 기본 전제인 '자기개방'을 돕는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경험의 중심현상은 '자각'이었는데, 이는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심리 사회적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 단선적인 인과과정이 아니므로 쉽게 개입효과가 드러나거나 그 개입효과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 탈비행을 돕는 개입서비스는 조급한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단편적인 인과적 조건으로 개입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등 청소년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탈비행의 기회(option)와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는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용적 태도를 갖고 청소년이 적응적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두산새동아국어사전(2004). 서울 : 두산동아.
- 박한샘 · 오익수(1998). “탈비행화과정 탐색에 대한 현장연구”. 청소년상담 연구, 6, 60-92.
- 신경림 역(2001). Strauss. A. & Corbin. J. 저.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현문사.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2(3) : 81-106.
- 이종수(2002). 무의탁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과정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규(2002).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지각, 대처행동, 부모-청소년 상호작용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ascal 세계대백과사전(2002). 서울 : 동서문화.
- Akers, R. L. (1998).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Boston. Mass: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orn, M., Chevalier, V. & Humblet, I. (2002).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6), 679-694.
- Bottoms, A., Shapland, J., Costello, A. Holmes, D. & Muir, G. (2004). “Towards desistance :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an Empirical Study”. *Howard Journal*, 43(4), 368-389.
- Bushway, S. D., Piquero, A. R., Broidy, R. L., Cauffman, E. & Mazerolle, P. (2001). “An Empirical Framework for Studying Desistance as a Process”. *Criminology*, 39, 491- 515.
- Bushway, S. D., Thornberry, T. P., & Krohn, M. D. (2003). “Desistance as a Developmental Process: A Comparison of Static

- and Dynamic Approach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129-153.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G.P. Putnam's Sons.
- Donenberg, G. R., Wilson, H. W., Emerson, E. & Byant, F. B. (2002). "Holding the Line with a Watchful Eye : The Impact of Perceives Parental Permissiveness and Parental Monitoring on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Psychiatric Care".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13(2), 138-157.
- Eddy, J. M. & Chamberlain, P. (2000). "Ramily Management and Deviant Peer Association as Mediators of the Impact of Treatment Condition on Youth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857-863.
- Elder, G. Jr.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Lerner, R.(ed). New York: Wiley. R.
- Fagan, J. (1989). "Cessation of Family Violence : Deterrence and Dissuasion. In Family Violence". In Lloyd, O. & Tonry, M.(eds). *Crime and Justice (Vol. 11) A Review of Research*. Tonry, M. & Morris, N.(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rall, S. & Maruna, S. (2004). "Desistance - Focu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search : Introduction to a Special Issue on Desistance from Crime and Policy". *The Howard Journal*, 43(4), 358-367.
- Farrington, D. P. (2003).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 Key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 The 2002 Sutherland Award Address". *criminology*, 41(2), 221-255.
- Farrington, D. P., & Hawkins, J. D. (1991). "Predicting Participation,

- Early Onset, and Later Persistence in Officially Recorded Offending".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 1-33.
- Guba, E. G., & Lincoln, Y. S. (1985). *Naturalistic Inquiry*. California: Sage.
- Hughes, M. (1998). "Turning Points in the Lives of Young Inner-city Men Forgoing Destructive Criminal Behaviors : A Qualitative Study". *Social Work Research*, 22(3), 143-152.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Ftaser, M. W.(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 Laub, J. H. & Sampson, R. J.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In Tonry, M. (ed.), *Crime and Justice (Vol. 2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 Hill.
- LeBlanc, M. & Loeber. R. (1993). "Precursors, Causes, and the Development of Criminal Offending". In *Precursors and Causes i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Dale, F. H. & Angold, A.(eds). New York : Wiley.
- Loeber, R. & Le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 Tonry, M. & Morris, N.(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eber, R., Stouthamer-Loeber, M., Kammen, W. V. & Farrington, D. P. (1991). "Initiation, Escalation, and Desistance in Juvenile Offending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36-82.

- Maruna, S. (2001). *Making Good: How Ex-Convicts Reform and Rebuild their L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aternoster, .R. & Brame, R.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 49-84.
-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 Rutter, M. (1988). "Longitudinal Data in the Study of Causal Processes : Some Uses and Some Pitfalls". *Studies of Psychosocial Risk: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In Rutter, M.(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 Laub, J. H.(1993). *Crime in the Making : Pathway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L., Conger, J. C., & Elder, G.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 217-243.
- Sampson, R. J. & Laub, J. H. (2003). "Life-course Desisters ?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41(3), 555-592.
- Search Institute. (1998). *Developmental Assets, Search Institute Profiles of Student Life : Attitudes and Behaviors Survey*.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Thornberry, T. P. & Krohn, M. D. (2001)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Susan O. White(ed.), *Handbook of Youth and Justice*. New York: Plenum.
- Weitekamp, E. M., & Kerner, H. (1994). "Epilogue : Workshop and Plenary Discuss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Cross-National Longitudinal Research on Human Development and Criminal Behavior*. In Weitekamp, E. M. & Kerner. H.(eds). Dordrecht: Kluwer Academic.
- Wright, J. P. & Cullen, F. T. (2004). "Employment, Peers, and Life-course Transitions". *Justice Quarterly*, 21(1), 183-205.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Desistance from Delinquency during Adolescence

Lee, Hee-Youn*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rocess of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found out the significance of the experiences and processes adolescents went through in their successful shift away from delinquency and carried out the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 (1998) to suggest a substantive theory based on data. The result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desistance from delinquency during adolescence is characterized as a dynamic and sociopsychological process that is accompani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condition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expect the results of intervention any time soon. Rathe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youth welfare system and develop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that provide a variety of social participations and experiences for youths. It is also needed to have continued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helping and waiting for juvenile delinquents to get back to adaptive normal lives. With this in mind, the study elaborates on the experiences and significance of desistance from juvenile delinquency, and explores all the conditions affecting it and its

* Yonsei University

processes and types, thereby formulating a substantive theory concerning the desistance process. By doing so, the study offers a practical and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desistance process and find ways to help promote it, thus provid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strategy for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dolescent, delinquency,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 5월 2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